

### 가정 주부들속에서 인기가 높은

## 《대경》 김가공품



최미옥 (평양대경김가공공장 지배인)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영양가가 높고 맛있는 음식인 김을 식생활에 널리 이용해왔다.

오늘날 식생활수준이 날로 높아가는 속에 웅진참김을 주원료로 한 《대경》김가공품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평양역전백화점, 대성백화점, 광복지구상업중심 등 평양시의 봉사망들에서 비롯하여 각지의 봉사망들에서

참김, 튀김김, 조미김, 조미김가루, 구운참김, 국거리김 등 수십가지의 김가공품을 봉사하고 있다.

평양역전백화점 김수려 봉사원의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김가공품을 찾지만 특별히 가정주부들속에서 수요가 높다고 한다.

《구운참김이다.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구운참김은 초밥과 주먹밥을 감싸먹거나 국이나 죽석국수에 넣어도 별맛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제살, 새우살, 송어, 까나리를 넣고 만든 조미김가루도 밥에 쳐서 먹으면 그저그만이라고 한다. 중구역에 살고있는 러옥순 녀성은 《머칠전에도 왔었는데 오늘은 국거리김을 사려고

한다. 저녁에 바다향기가 풍기는 김으로 국을 맛있게 끓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영양가가 높고 건강장수에도 좋은 김가공품들은 평양대경김가공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곳을 찾으니 물씬 풍기는 김의 독특한 냄새와 바다향기가 온몸을 감싸안았다. 우리는 최미옥지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어떤 김가공품이 주부들의 눈길을 더 끄는가? 《구운참김이다.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구운참김은 초밥과 주먹밥을 감싸먹거나 국이나 죽석국수에 넣어도 별맛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제살, 새우살, 송어, 까나리를 넣고 만든 조미김가루도 밥에 쳐서 먹으면 그저그만이라고 한다. 중구역에 살고있는 러옥순 녀성은 《머칠전에도 왔었는데 오늘은 국거리김을 사려고

부러 호평을 받지 못할 때가 제일 안타깝다며 그는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다.

연젠가 공장의 김제품들로 음식을 만들어 집식구들에게 대접하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며 방도를 모색한적이 있었다고 한다. 비록 제품에 대한 식구들의 혹평은 마음을 더럽혔지만 그 계기가 자신을 더 분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은 온도와 습도에 매우 예민하여 가공하기가 몹시 힘들며 생산공정전반을 기계화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공장에서는 국내에서 제작한

김가공설비들을 일식으로 차려놓고 15층에 60여가지의 김가공품을 생산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는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조미김가루공정을 비롯한 여러 공정들도 자체의 힘으로 꾸리었다.

김은 바다나물가운데서 가장 풍부한 영양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하여 《바다의 검은 영양덩어리》, 《바다의 불로초》로 불리운다. 옛적에 왕에게 진상으로 바쳤던 김이 오늘은 사람들의 식생활에 필수적인 《건강길동무》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 혈분의 자옥을 남긴 지사들

### 애국적인 의병운동자 최경철

일제가 무력으로 조선봉건정부를 위협하며 범죄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였다. 당시 애국의 열정에 넘쳐있던 청년들은 의병대호를 조직하고 너도나도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떨쳐나서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 어린 나이에 반일구국의 길에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최경철이었다.

최경철은 1892년 황해도 연백군 봉서면 현족리(당시)에서 평상훈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벌열이 높았던 그는 평양의병장으로 이름을 떨치고있던 리강년을 찾아가 16살의 애젊은 나이에 선봉장이 되어 의병활동을 맹렬히 벌리었다.

이무렵인 1907년 1만여명에 달하는 의병들은 경기도 양주군 왕방산(당시)부근에 모여 일제에게 강경당한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펴게 되었다.

연합의병대는 지역별부대로 편성되었는데 그 이듬해 1월 선봉부대 300여명은 서울 동대문밖 30리지점에 진출하게 되었다.

일제가 무력으로 조선봉건정부를 위협하며 범죄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였다. 당시 애국의 열정에 넘쳐있던 청년들은 의병대호를 조직하고 너도나도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떨쳐나서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 어린 나이에 반일구국의 길에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최경철이었다.

최경철은 1892년 황해도 연백군 봉서면 현족리(당시)에서 평상훈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벌열이 높았던 그는 평양의병장으로 이름을 떨치고있던 리강년을 찾아가 16살의 애젊은 나이에 선봉장이 되어 의병활동을 맹렬히 벌리었다.

이무렵인 1907년 1만여명에 달하는 의병들은 경기도 양주군 왕방산(당시)부근에 모여 일제에게 강경당한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펴게 되었다.

연합의병대는 지역별부대로 편성되었는데 그 이듬해 1월 선봉부대 300여명은 서울 동대문밖 30리지점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부대의 도착을 기다리고있던 선봉부대는 일

제군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때 100여명의 의병대를 거느리고있던 최경철은 일제침략군과 조우하여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이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고 평양송실학교에 입학한 최경철은 반일기운이 높은 학우들과 친교를 맺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위해 초대조선총독으로 거머쥔 테러우제를 암살하기 위한 사정계약을 짜놓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암살계획이 탄로나 최경철은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3년간의 감옥살이를 한 그는 반일의 뜻을 버리지 않고 평남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반일애국에 뜻을 둔 동료들을 규합하는데 힘썼다.

이무렵 3.1인민봉기가 일어났다. 전국을 휩쓴 반일의 거센 항거에 편승하여 최경철은 동료들과 함께 부대를

모아 황해도일대를 중심으로 도처에서 류동하면서 일제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안기었다. 그날 농민에게 또 다시 체포된 최경철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는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뜻을 이루지 못함을 금치 못해하면서 동료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은 뒤 백발을 만주에 두고 나라를 찾지 전에는 고국에 이장하지 말라.》고 하였다. 반일의 뜻을 품고 사위온 그의 애국적열정은 오늘날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조희승



최경철의 사

## 소나무를 널리 심고 퍼친다

공화국에서 민족의 기상과 숨결이 그대로 비껴있는 조선의 국수 소나무를 널리 심어주시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세잎소나무, 맹산검은소나무, 금강소나무를 비롯하여 20여종의 각종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줄기색깔이 붉은 밤색 또는 검은 밤색을 띠고 높이가 20~40m가 되는 소

나무들은 나무모양이 여러가지 형태인것으로 하여 그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다.

산림연구원 산림육종학연구소에서는 소나무의 생물학적특성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용일 산림육종학연구소장은 《연구소에서는 튼튼하고 역세로 보기 좋은 소나무의 유전자원들을 찾

기 위해 평양시 룡악산지대를 비롯하여 소나무들이 분포되어있는 지역들을 답사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또한 적박한 산림토지에서 직파조림을 하여 사물들을 높이기 위한 종자피복제를 새로 개발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높이 평가하신 금강소나무 우란개체 30여그루를 선발하고 각지에서 재배하면서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되고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평양시 중구역에서도 심은 여러종의 소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짜고들고있다. 구역관내에 소나무들을 정상적으로 심은 결과 수십년이상 자란 소나무가 100여그루나 있다.

구역원림사업소에서는 낮은 도가 높은 조건에 맞게 아침과 저녁에 2차이상 일부분을 진행하여 사물들을 높이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소나무관리와 함께 전정사업도 따라세우고있다. 본사기자



### 단편소설

## 사랑하노라 (8)

글 럼 예 성, 그림 김윤일

《하어든...》 미용사는 시답지 않은 손동작으로 머리를 감아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잠시후에 나직이 소리를 질렀다.

《머리칼질이 정말 좋구만. 이런 질은 좀 해보지요?》

《네.》 《음, 파마가 참 잘 나왔어. 약두 물론 좋을거구...》

미용사는 날랜 손길로 다같은 머리에 비닐모자까지 씌워주었다.

나는 자리를 옮겨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내가 타산한 시간이 다 지나갔다.

《머리를 풀어도 될까요?》

《그리자요.》 심장이 쿵쿵 뛰이기 시작했다.

숨가쁜 한호초조가 흘러가기 시작했다.

환원하고 속성하고 머리발고 건발하고... 모든 공정이 다 끝날 때

까지 나는 눈을 감고있었다. 불현듯 미용사녀인이 세면고함을 질렀다.

《아- 아- 이진...》 나는 눈을 뜨고 눈앞의 거울을 보았다.

순간 다시 눈을 감고싶었다.

이상한 색깔의 머리모양을 한 얼굴의 자그마한 처녀가 눈이 커다래서 마주 쳐다보고있었다.

《아니 이런, 이게 뭐요? 어서 봐요.》

미용사녀인이 성난 표범같이 필뿔 휘었다.

녀성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봉사하는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녀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격분할 일이였을 것이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까.》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을 부르려고 붉은 노을을 피워올리는 저녁하늘이 이토록 다형스러워보이는 처음인듯 했다.

문밖을 나서는데 미용사가 달려나왔다.

《이제 알아. 연구사체네지? 이 파마약을 연구하는...》

그때도 이주책없는것의 말을 듣구 울면서 가더니 온눈은 또... 아, 이걸 어쩌면 좋단?》

《어머니, 미안합니다. 꼭 좋은 파마약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땐 우리결 마음껏 쓰십시오.》

《아이구, 내 딸만 한 처녀가 어쩔 이리 용서? 육량이 하라구. 난 우리의것 하나하나에 이런 눈물나는 사연들이 있는줄두 모르구 생각나는대로 시비질했으니...》

《어머니, 앞으론 우리결 저절로 자랑하구 칭찬하며 쓰게 될겁니다.》

눈물이 글썽해진 녀인을 가깝스로 때놓고 곁을을 옮겼다.

수많은 사람들의 놀란 눈길을 받으며 길을 걸었다.

키작고 몸매 가냘픈 처녀의 회한한 머리모양에 놀랐는지 앞에 가던 아름다운 처녀들이 자주 돌아보

## 역사유적 신계사3층탑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신계사터에 남아있는 9세기의 돌탑이다.

이 탑은 정양3층탑, 장연사3층탑과 함께 《금강산3대탑》의 하나로서 예로부터 이름이 높았다.

신계사3층탑은 아래, 우두층의 기단과 3층의 탑몸 그리고 탑머리로 이루어졌다. 맨밑에는 8개의 판돌로 부는 네모난 바닥이 있는데 그 한변의 길이는 2.27m이다. 아래기단의 높이는 밑돌과 가운데돌, 갑돌까지 합하여 0.56m이고 옷기단의 높이는 1.05m로서 그 비례는 대략 1:2로 되어있다.

아래기단은 넓고 낮으며 옷기단은 그보다 좁고 높게 되었는데 옷기단의 높이는 아래기단의 높이보다 거의 2배나 되게 하였다. 기단의 매 면은 각각 하나의 판돌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기둥을 3개씩 돌치고 그 사이 면들은 조각상을 둘우세웠다.



본사기자

신라돌탑의 양식상특징을 잘 보여준다.

탑몸은 위로 오르면서 너비와 높이에서 차례줄임을 주어 시원하게 솟아올라보이게 하였다.

신계사3층탑은 아래부분은 넓고 무겁게, 윗부분은 좁고 가볍게 함으로써 전체로서 장중하면서도 높이가 솟아오른 느낌을 주는 탑의 건축적효과를 잘 나타낸 우수한 작품이다. 본사기자

## 대동강문화

대동강문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유역에서 발생하고 번성한 고대문화이다.

대동강문화는 그 내용과 우수성에 있어서 이미 알려진 4대문화보다 앞서거나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는 세계최초의 고대문명의 하나이다.

대동강유역에는 단군조선시기의 문화를 대표하는 고인돌무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고 고대문명들과 도시를 방불케 하는 큰 부락터들이 집중분포되어있다.

대동강유역에는 단군조선시기의 문화를 대표하는 고인돌무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고 고대문명들과 도시를 방불케 하는 큰 부락터들이 집중분포되어있다.

철기 등 금속유물들과 벽, 공, 조, 기장, 수수와 같은 옥곡작물, 높은 수준의 절구, 룯과 칠그릇과기, 고대천문학의 면모를 보여주는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에 표시된 별자리그림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대동강유역의 고대무덤들에서 나온 청동인공예 장식품과 청동방울들을 통해 이 지역에서 음악과 무용, 교예가 상당한 수준에서 발전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으며 고대글자인 신지글자가 사용된 사실은 고대문화의 높은 수준을 말해준다.

대동강유역에는 단군조선시기의 문화를 대표하는 고인돌무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고 고대문명들과 도시를 방불케 하는 큰 부락터들이 집중분포되어있다.

대동강유역에는 단군조선시기의 문화를 대표하는 고인돌무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고 고대문명들과 도시를 방불케 하는 큰 부락터들이 집중분포되어있다.

## 건강에 유익한 대추

### 안락다운 우리 딸

### 감쪽같이

《감쪽같이 빠져나오다.》 《감쪽같이 속이다.》와 같이 하는 일이 날세고 숨어서 있어서 남이 전혀 알수 없도록 아무런 흔적도 없는것을 가리킨다.

옛 문헌들에서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말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근대시기 이후에 생긴 말이라고 볼수 있다. 이 말의 어원을 《꽃감의 쪽을 먹는것과 같이 날세게》라는데 기초하고있다고

을 하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여러가지 건강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추에 들어있는 독특한 항산화물질들은 잠의 질과 뇌기능을 개선시킨다고 한다.

또한 대추씨추출물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한다.

대추는 면역계를 강화해주고 암세포의 증식을 막을수 있다.

대추추출물은 위와 대장을 튼튼하게 해주어 게양이나 상처, 세균으로 인한 소화기계통의 손상을 완화시켜준다.

본사기자

기도 했다. 웃음소리로 들려왔다. 가슴이 아팠다. 언젠가부터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심해진 머리칼들에 구슬같은 비방울들이 맺히기 시작했다.

내 마음의 눈물이 그 머리칼들에 흠뻑히 흠뻑어나오는것은 아닌지...

나는 연록색의 목수건으로 가만히 머리를 닦아냈다.

그때, 아젠이 파마약의 약점을 알았다. 손가락을 쓰는 민족이 있고 저가락을 쓰는 민족이 있었을 때 민족성원들의 머리질도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런데 수입파마약의 배합비율을 무리대고 그대로 리용했으니... 난... 참 바보야.

... 그때 누군가의 억센 손길이 내 어깨를 알각 잡아왔다.

나는 그 사람의 윤기도는 까만 구두를 보았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소? 누가?》

정인의 목소리는 아픔에 떨리고있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저 하나의 머리쯤이야 뭐라요? 나의 모든것을 다

울, 두방을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유정아! ...》

뜨거운 그 목소리에 몸을 흠뻑했다.

타는듯 한 그의 두눈이 나의 한심해지고 처참해진 머리를 가슴아프게 훑어내리고있었다.

《난 동무가... 대학때처럼 경쟁자가 되길 바랬소. 낮은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랬어. 아팠지만 부장했던거요.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러는건 아니었소. ...》

그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떨리는걸까? 그리고 내 심장은 왜 이따지도 쿵쿵 뛰는 걸까?

《난... 난... 괴롭지 않아요. ... 난 행복해요. ...》

서쪽하늘가에서 노을이 황황 불타고있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사람이었구나. ... 내가 사랑하고싶었던 사람! 밤길을 갈때, 새벽길을 갈때 언제나 함께 가고있었던, 언제나 의지하고 믿고싶은 강하고도 훌륭한 사람!

《방향을 꼭 채우며 점점 커지는 그의 모습을 향해 나는 떨리는 걸음을 내질었다. ...》 (끝)